

<우리 집이야!>

갑작스레 동거를 결정한 두 사람!

너네 진짜 안 사귀는 거 맞아? 라는 의심 하에 시작된 집들이.

\*난데없이 PC들이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w. 무염

- 배경: 현대
- 장르: 로맨스 코미디
- 플레이 인원: 4인 이상의 다인권장 (KPC+KPC의 동거인 PC+ 놀러온 PC 2~인 권장)
- 예상 플레이 타임: 2시간 내 예상
- 로스트 가능성: X
- 약칭: 울집야

모임 중 한 두명이 사귀면 **가족끼리왜이래** 라고 외칠 수 있는, 서로 친한 PC들을 상정하여 작성하였으나 집들이를 갈 수만 있다면 어떤 관계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개판인 집들이**를 보고싶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 추천 관계

KPC, KPC의 동거관 PC: 아 그런 사이 아니라고(발그레)

PC들: **으아아아아 로파이이이이이이이**

#### 주의사항

크툴루 호러적 요소가 매우 적은, 짧은 개그시나리오입니다.

애인이 있는 캐릭터가 포함된다면 **NTR** 요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캐조종 요소가 극심합니다.**

커피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하는 KP만 읽어주세요.

---

진상: 이 집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한 주문에 걸렸거든요. KPC 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러브러브한 상태입니다.(안 그런 페어더라도요.) 먼저 KPC 페어에게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고지하고 플레이하는게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쪽이 사랑에 빠진 상태여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 본문

1.

카톡카톡... 알람이 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다는데요?

아... 왜 이래 가족끼리... 안 그래도 두 사람의 행적이 다소 수상했습니다. 어디 단.둘.이 놀러갔다고 사진을 올리질 않나... 다같이 모이면 꼭 둘이 붙어 앉고요.

아 이거 수상합니다 집들이 드가야겠습니다. 집들이는 사실 핑계입니다.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집을 뒤지러 가는 겁니다.

집들이 선물을 준비해봅시다.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갈 수도 있고,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 수도 있겠지요. 혹은 어제 못 먹고 남은 치킨을 ‘정성스레 준비했다’는 포장으로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물의 품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와줬다”는 당당함입니다.

2.

땡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마자 문이 활짝 열립니다. KPC 페어가 나란히 서서, 마치 한국 드라마 에필로그 속의 여주 남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집에 들이닥쳐서 집을 뒤져볼... 아, 아니. 일단 선물부터 주는게 좋겠습니다.

## RP가이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상하게 사이좋은 KPC 페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애칭을 부르려다가 헛기침한다거나요.

선물을 받고난 뒤의 KPC는 고맙다며 식탁으로 PC들을 안내합니다. 치킨부터 피자, 샐러드에 볶음밥...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대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신혼집에 온 기분이 듭니다. 조사도 식후경 일단 먹고 봅시다.

3.

배부르게 밥도 먹었다면 방을 둘러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을 옮길때마다 PC들은 랜덤으로 다른 PC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해당 랜덤 캐릭터는 KPC와 KPC 페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원래 랜덤 배정된 PC와 함께사는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사 포인트 [거실] [주방] [침실]

[거실] 여행 기념품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사진첩이 쌓여 있습니다. 두 사람... 이런 여행지는 언제 갔었나요? 취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살짝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달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방에서 나간다면 이성 판정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키퍼는 랜덤다이스를 굴려 사랑에 빠질 PC를 골라주세요. (실패하면 랜덤한 상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가장 숫자가 높은 2인 정도를 권장합니다.) PC는 갑작스레 주저앉습니다. 어...? 잠깐. A의 머릿결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PC는 갑작스레 A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주방] 냄비와 조리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세제와 주방용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흔적이 엿보이는 공간입니다.

이성판정을 올려주세요. (실패하면 랜덤한 상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가장 숫자가 높은 2인 정도를 권장합니다.) 실패한 PC는 갑작스레 벽에 팔을 기대니다. PC, 어디 아픈가요? 라고 물어볼 찰나 PC는... 어...? 잠깐. (랜덤한 캐릭터)와 함께 요리하는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요.

[침실] 벽에는 커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침실 곳곳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일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찰력판정: 베개를 뒤집으면 YES 베개가 나옵니다.

이성판정을 굴려주세요. (실패하면 랜덤한 상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가장 숫자가 높은 2인 정도를 권장합니다.) 실패한 PC는 문득 이 집이 포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랜덤한 캐릭터)와 함께 (2d100)일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살았습니다. 집 주인이 KPC라고요? 그럴리가.

5.

돌아갈 시간이 되자 억울해집니다. 니나돌아가세요. 여긴 내집입니다. KPC와의 베개싸움 근접전 대항을 시작합니다.

6.

다구리당하는 KPC의 체력이 5 이하로 나올 때 쯤, 혹은 KP의 판단 하에 전투를 종료합니다. 베개가 팡 하고 터지게 하며. 베개가 터지자 큰 충격으로 모두의 정신머리가 돌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죠?

7.

싸움이 마무리 되었다면 집으로 갑시다. 적당히 서로 민망하게 놀리며 롤플해주시면 좋습니다.

END.